

전주매일

2017년 10월 13일 금요일 (음 8월 24일) 제 190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현대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주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대에서 화려하게 열린 전국 외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전북도에 거주하는 유학생을 비롯한 전국의 유학생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전국 외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이 12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성대히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전라북도 송하진 도지사(왼쪽)와 전북대 이남호 총장을 비롯한 각 대학 총장, 그리고 유학생과 대학생 5천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국가의 이채로운 문화가 씨줄과 날줄로 엮였다. 특히 올해에는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대상을 전국에 있는 모든 유학생으로 확대했다.

박근혜 정부 세월호 참사 문서 불법조작 정황 발견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가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문서 등을 사후에 불법적으로 조작한 정황이 담긴 문서를 발견했다고 12일 밝혔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지난 9월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캐비닛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1일 안보실 공유 폴더 전산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 조작한 정황을 담은 자료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靑 "최초보고 시점 9시30분에서 10시로 30분 늦춰"

임 실장은 "지난 정부 청와대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2014년 4월16일 오전 10시 세월호 사고에 대한 최초 보고를 받고 오전 10시15분 사고 수습관련 첫 지시했다고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임 실장은 "문제는 2014년 10월 23일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보고 시점을 수정해서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다는 것"이라며 "(사고) 6개월 뒤인 2014년 10월23일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 상황 보고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돼 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또 박근혜 정부에 세월호 참사 관련 국정조사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변경한 내용도 공개했다. 그는 "기존 위기관리 기본 지침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안보상황의 종합적인 컨트롤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런 지침이 2014년 7월말 안보실은 국가안보실, 재난안전행정부에 관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량

정부 단속에도 오히려 증가

▶ 정동영 의원, 국토부 국감서

올 1~8월까지 11만8000건 전년 10만7000건 뛰어넘어 "부동산 대책 '헛방'... 문 정부, 후분양제 법제화해야"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는 줄지 않았다. 정동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분양권 전매량은 11만8000건으로 작년 동기 10만7000건을 훌쩍 뛰어넘었다. <관련기사 6면> 2016년부터 2017년 8월까지 분양권 거래량은 약 29만건, 거래금액은 2016년 약 57조원, 2017년 약 42조원으로 1년 8개월간 100조원 규모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3조5847억 원으로 전국에서 분양권 거래금액이 가장 많았고, 서울과 부산이 각각 5조 4601억 원, 3조7550억원으로 뒤를 이

었다. 거래금액을 거래건수로 나눈 분양권 평균 거래금액은 서울이 7억 1000만원으로 전국 분양권 평균 거래금액 3억5000만원보다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의원은 "정부는 작년부터 부동산 전매 거래를 집중 단속했지만 올해 8월까지 1년 8개월간 분양권 거래는 약 29만건, 거래금액은 100조 원에 육박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분양권 거래 단속이 헛방이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5월 이후 분양권 전매량은 작년보다 적게는 10%p, 많게는 26%p 더 증가했다. 특히 6.1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서울, 광명, 세종시 전역, 경기, 부산 일부 지역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었음에도 7월 분양권 전매량은 전년 대비 3500건 이상 증가하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실제로 2017년 분양권 불법전매 및 알선행위로 적발된 인원은 100명이 안 됐다. 정동영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지역별 분양권 불법 전매 통계'를 제시하면서 "올해 초부터 정부는 요란하게 분양권 전매 단속을 실시했는데 과연 몇 명이나 처벌을 받았는지" 반문하고 "아파트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분양권 딱지거래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의원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도를 '선분양제가 낡은 병폐이자 청산되어야 할 적폐'로 규정하고 "적폐청산의 열망을 담은 시민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선분양제를 폐지하고 아파트 후분양제 법제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청년이 살기 좋은 전주 조성

시, 소통 통해 정책 구축 강화
창업지원과 신설 협력업무 추진
참여 20% 할당제 등도 추진

전주시가 청년들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기반 구축을 강화하고 나섰다. 앞서, 시는 청년이 살기 좋은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해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를 주도해왔으며, 청년정책제안기구인 청년희망단을 구성·운영하고, 다양한 청년창업활성화 사업들을 전개해왔다. 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2022년까지 진행될 5개년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 시는 또, 청년들과의 소통을 통해 청년들의 시각에서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청년희망단 운영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9월 발족된 제2기 청년희망단은 전주시에 거주중인 만 18세~39세의 각계각층의 청년 6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로부터 받은 정책제안을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를 통해 청년들이 현실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청년 지원 정책으로 이끌 예정이다. 나아가, 시는 각종 위원회 등 행정의 전 분야에 걸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비율을 20% 이상으로 하는 청년 참여 20% 할당제 도 추진, 청년의 목소리를 각종 현안에 담을 방침이다. 이밖에, 시는 조만간 청년들이 모여 서로 소통과 다양한 활동을 공유하는 공간인 '비밀 3호점'도 개설할 예정이다. 시는 올 상반기부터 청년들의 거점인 객사 부근과 전북대 인근에 각각 비밀1·2호점을 지정해 청년들의 소통과 활동을 지원해왔다. 이와 함께, 시는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해 조직개편을 통해 창업청년지원과를 신설해 청년협력 업무를 추진해 왔으며,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 입안을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시는 향후 청년들을 위해 지속성 있는 심리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며, 국제적 진로영역 확장을 위해 '글로벌 두드림'이라는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등 청년들을 위한 공간 발굴과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발굴에 매진할 방침이다. /김민근 기자

순창의 전통장(醬), 세계인의 일품소스(SAUCE)

제12회 순창장류축제

2017 순창 세계소스박람회

2017. 10.20(금)~10.22(일) 3일간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10~2017 8년연속 문화관광축제

- * 순창읍내, 공설운동장 앞 ↔ 축제장 셔틀차량운영
- * 붉은옷 착용시 축제장 상품구매 할인 혜택
- * 축제 대표 프로그램
 - 2017인본 고추장 떡볶이 파티
 - 장류 주먹밥 모자이크 만들기
 - 순창고추장 임금님 진상행렬
 - 고(鼓)추(秋)장(場)락(樂) 퍼레이드
 - 화끈락(樂) 페스티벌
 - 우리가족 떡볶이 만들어먹기, 전통장류 소스만들기 등
 - 민속마을 불빛쇼(EDM), 좀비야 놀자 등 야간 프로그램 운영

주최/주관: 순창군/순창장류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한국관광공사

www.jangfestival.co.kr